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 301장 / 통 460장)

1.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사랑 어찌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손이 항상살펴 주시고
모든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맘도 연약하나 새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산길 헤맬때
주의손을 굳게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다시 뵈올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짐 주께맡겨 벼을날도 멀잖네
나를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본문

시편 121편 1-8절

¹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²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³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⁵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⁶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⁷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⁸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찬양

좋은신 하나님

1. 좋은신 하나님 좋은신 하나님
2.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3.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후렴) 참 좋은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세요!

“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 가족 중에 예배 순서 담당자를 의논합니다.
2. 예배 공간을 마련합니다.
-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3. 성경책과 가정예배서를 탁자에 놓습니다.
4. 집에 있는 십자가를 탁자 위에 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5.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정예배 인도자는”

1.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2.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화목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도록 이끕니다.
4. 가족들에게 가정예배의 목적을 안내합니다.
-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설날
가정예배서

2021 설날 가정예배

예배의 부름 | 인도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기 도 | 담당자

성경봉독 | 시편 121:1-8 | 담당자

말 씬 |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 인도자

온가족기도 | 모든 가족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 줄으신 하나님 | 모든 가족

주기도문 | 다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 시편 121:1-8 •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이전과 같이 온 가족이 모일 수 없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와 불안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니까?

첫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3-4절).

시편이 쓰인 때는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하나님과 달리 평상시 잠자는 게으른 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요란하고 번거로운 제사의식으로 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방신과 달리 하나님은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편 그들이 되셔서 외부의 위협에서 지키십니다(5-6절).

본문에서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쇄마르’인데, 울타리를 둘러서 진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편 그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주변 위협에서 지키십니다. 성경에서 우편은 매우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편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세상에서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 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7-8절).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면해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자체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영혼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네페쉬)은 생명이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1-2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했습니다. 산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이겐 동행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격려 해야 합니다. 서로 아스파조마이(문안)해야 합니다.

설 명절 기간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하는 우리 가정이 됩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